

녹색가족성장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정 지 영
여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 성 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I. 문제의 제기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직면해서 최근 '녹색 성장(Green Growth)'에 주력하고 있다(대한민국정책포털, [http:// green.korea.kr](http://green.korea.kr)).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와 북극의 빙하 감소에 따른 기후온난화로 연이은 기상재해가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녹색 성장'이 온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엔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이다(2006, 스텐 보고서, Stern, Review).

현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렌드의 변화에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규제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신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태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높은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를 아끼고 낮은 탄소발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녹색성장은 우리의 학문 영역인 가족자원경영과 그 실천 과제인 건강가정사업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가? 녹색성장이란 용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자원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자원경영학의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며, 또한 가족의 건강성 회복과 성장, 행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실천영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녹색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가족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주 개발 대상인 환경, 자원,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족생활과의 연관성을 접목하여 '녹색가족성장'의 개념을 창출하고, 녹색가족성장은 무엇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가족성장의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1.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요소(대한민국정책포털, <http://green.korea.kr>)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현 정부에서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여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이기에 이 의미와 해석도 현 정부에서 가져와야 한다. 환경과 성장은 좋은 이미지를 가진 단어의 조합이지만, 서로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단어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성장,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성장은 늘 환경 파괴와, 자원의 고갈, 자연의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울리기 어려워 보이는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도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산업의 개발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고도의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을 미래 산업의 유망 품목과 신기술 개발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와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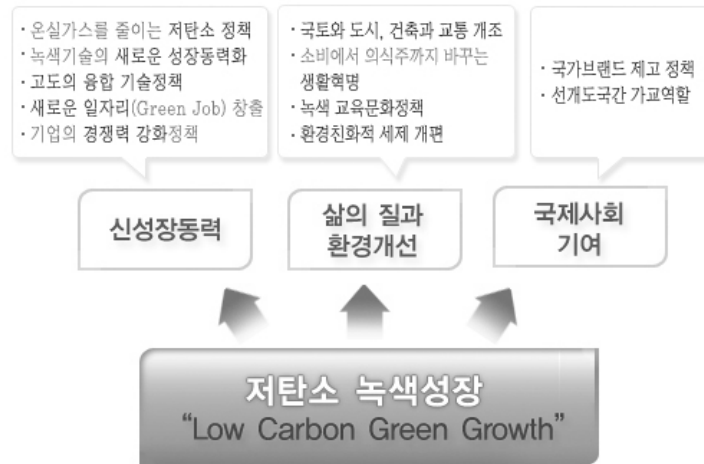
<표 1> 녹색성장의 3대 요소와 내용

녹색성장 3대 요소	내 용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제조업 중심 -> 지식서비스업 중심) • 에너지 소비절약 & 사용의 효율화 • 생태 효율성 제고 정책
동일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되, CO ₂ 의 배출 등 환경 부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 CO₂ 배출 규제 •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신 성장 동력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신 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 세계시장 선점 지원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green.korea.kr>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의 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이다. 따라서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고, △신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천명하였다.



※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green.korea.kr>

<그림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현재 적극적으로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반영되고 있다. 즉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녹색기술의 발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 주택인 그린 홈, 그린 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등 다양한 실천방안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녹색제품의 구매 유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확대하여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저탄소 녹색소비·생산'으로 전환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홍보하는 등 '에코리빙운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아울러 광역차원에서는 기상재해와 건강피해 등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범지구적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 녹색성장의 10대 추진방향(대한민국정책포털, <http://green.korea.kr>)

이와 같은 '녹색성장'정책은 다음의 10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의의 생활실천적 관점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녹색 가족성장'의 방안으로써 가족자원경영 측면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기존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반면 환경오염은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가족생활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물 생산의 자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으로 가시화 될 수 있다.

▣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환경 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나아가자 한다. 녹색기술은 제품생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소비할 때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개도국에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 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정생활 측면에서는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제품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며, 재생용품과 자연자원(물, 바람, 태양광 등)의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 산업화함으로써 핵심 녹색기술을 이미 선점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 초단열 창호, 통합관리 네트워크, 자기정화 가전제품 등의 '그린 홈' 기술,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저장,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 카, 태양에너지와 물·CO₂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 등이 융합녹색기술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가족자원관리의 측면에서는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태양전지와 초단열재의 사용, 홈 오토매틱 시스템, 그린 홈이나 그린 카 소비의 활성화 등 자원 및 에너지 소비패턴을 전환함으로써 고도의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의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가정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재활용 및 친환경 상품을 애용함으로써 이들 녹색성장 관련 제품의 소비의 촉진과 함께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유통 및 각 소비과정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거의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되었다. 이 가운데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자동차가 시장의 70%를 점유하였다. 우리 기업들도 친환경 녹색기술을 자동차 산업에 보다 많이 도입함으로써,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자동차 기술 개발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도시·건축·교통의 개조

국토의 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시의 관리와 함께 재생 및 신도시의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도 그린 하이웨이 정착,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 카의 상용화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40~55%의 양을 줄이고도 쾌적한 그린 홈·그린 빌딩을 확대 보급할 것이다.

도시와 교통, 건축 등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정생활 측면에도 자전거타기와 걷기의 생활화, 저탄소 차량의 상용화 등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에코 효율성 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또 에코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 등 조세혜택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계 혜택 및 녹색제품의 판별 및 유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녹색제품의 소비가 활성화 된다면,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소비 스타일과 선택 등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

앞으로 미래사회의 트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따라서 산업적·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도덕적 접근으로 생활문화 전반의 포괄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가정생활에서도 컴퓨터그래픽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통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오락 등의 변화로 시간이나 장소 등의 측면에서 여가를 즐기는 패턴이 변화할 것이고 교육분야에서도 원격학습 및 재택 학습 체계가 활성화 될 것이다.

▣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탄소세 도입 등 환경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법인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글로벌 환경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키워나가고자 한다.

즉 기후변화 대응분야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그린 리더십을 제고하고 적극 활용할 것이다. 환경 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외국과의 환경협력협정 MOU 등 환경외교를 그린 리더십 제고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3. 녹색성장을 이루어 가는 녹색가족성장

지난 2009년 8월15일 건국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국가의 녹색성장 비전이 가정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적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인 녹색성장을 가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센터의 실천방침을 '녹색가족성장'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 가령 석유를 대체하고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카나 수소 차를 개발·생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일궈냈다면 이는 녹색성장이 구현된 모습이다.

현재 우리의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은 이처럼 '환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국가정책의 실천측면에서 '녹색가족성장'은 가족을 단위로 녹색성장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즉 가족이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사회 내의 생활이 실제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되도록 가족단위의 녹색성장 실천과제를 찾아 가족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녹색성장 관련 교육과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서 보다 촉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과 녹색성장의 개념이 합쳐진 '녹색가족성장'은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한 가족의 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녹색가족성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

1. 녹색가족성장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음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정차원에서 실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업무를 통합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을 토대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일차적으로 정책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거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8대 건강가정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가정공동체 문화의 조성이 그 주요 과제이다(조희금 외, 2005).

따라서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센터의 가족문화 사업에 기본법과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담당 부처(과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 방향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좀 더 녹색성장의 개념을 부가(附加)한다면, 녹색성장의 정책의 실천전달체계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녹색가족성장을 지향하게끔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단위의 자발적인 주민 조직인 가족봉사단을 활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가족봉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부터 가족봉사단 활동을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d).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봉사단 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적인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센터에서는 가족단위 활동과 봉사, 건강가정의 생활문화고취, 지역공동체 문화의 형성 등을 문화 사업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센터들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화 사업을 실시하거나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가정 생활문화와 가족봉사단 활동 프로그램 안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문화로 녹색성장운동을 전파하고 확대·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오늘날 가족들은 가족규모의 축소와 형태적 다양성, 친족과 같은 가족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개별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이 과거 전통적 가족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유대는 매우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통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끼리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위협요인, 즉 아동과 여성 등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가족규모의 축소에 따른 정서적 유대의 단절문제와 사회적 위협에 대한 개별적인 대처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동일한 욕구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개별 가족들이 지역 내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문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사업들이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이웃사촌한가족 등이다.

이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가족친화적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사업들은 개인의 욕구, 취미 혹은 자녀연령 및 생활주기가 유사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상호교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핵가족 구조에서 오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족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문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들이 모임에 참여하여 이웃이나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공동의 문제들, 예를 들어 자녀의 안전이나 돌봄, 불건전한 환경 정비, 지역 축제 등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여가활동 중 지역사회공동체 활동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 즉 '함께 하는 육아'와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환경과 에너지 및 자원 보호와 재활용 등에 대한 캠페인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녹색성장을 촉진해 갈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을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나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들 중에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천연 비누 만들어 이웃과 나누기(서초구센터)'나 'Smile Again, Clean 강남'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강남구센터)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할 있다. 또한 '재활용품 이용하기-아나바나 장터'나 '에너지 절약캠페인' 등도 녹색성장의 추진 방향과 일치되는 활동들로 '녹색가족성장'의 좋은 일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인 가족문화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문화사업에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역주민간의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소재로의 소비생활 변화 등의 의식개혁교육, 그리고 실제 녹색성장실천프로그램을 그 내용으로 접목하여 '녹색가족성장'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녹색가족성장 프로그램

녹색가족성장의 핵심은 가족들의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생활양식의 창출과 노력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 지역이 아닌 전국,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녹색성장에 대한 필요성, 의미, 중요성 등에 대해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교육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것이 지역단위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나'보다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족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절약', '에너지 활용'등 환경지킴이를 위해 필요한 실천전략들을 계속 알려주고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녹색가족성장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필요로 하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단위 가족문화 활동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친환경적 녹색성장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이웃사촌 한가족 등이다.

1) 가족봉사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은 함께하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가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가족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가족단위로 자원봉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로 가족이 가진 자원을 환원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공유하고, 시민책임감과 가족의식이 증진되어 가족구성원의 자기자존감이 더욱 향상되도록 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 또는 여가문화로서 가족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가족들은 지역 환경 개선이나 의식개선 캠페인, 또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의 자원 나눔과 공동사용의 '가족녹색성장'의 방안을 실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의식의 확산과 함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뿐 아니라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각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2008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프로그램인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Smile Again, Clean 강남'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활동을 들 수 있다. 가족봉사활동을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 증진

및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지역사회 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강남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족봉사단 활동은 가족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탄천, 학여울 습지를 탐방하여 환경 유해식물(통뎀한) 제거와 환경지킴이로서 지역사회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회를 제공 한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d). 또한 지역공동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도 역시 누구나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중여울산 환경지킴이, 천연비누 만들기, 강화도 갯벌 살리기, 지역문화재 지킴이, 송편 빚기, 자전거 마라톤대회 진행 요원 등)을 개발 보급하고(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d), 가족의 힘을 사회적 기여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점차 가족친화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친환경수세미 만들기 등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이자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의 기회로 삼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d).

이러한 가족봉사단 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 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나눔과 소통을 갖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봉사단의 장점과 기능을 살려 지역사회에 가족봉사단이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점차 ‘녹색가족성장’을 실현해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2) 가족품앗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품앗이’ 사업은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 내 돌봄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의 물질적 지원 외에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이다. 즉 정책적 돌봄 지원체제로 충족되지 않는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 센터에서 육아 품앗이를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2009년 공통사업으로 지정되어 전국 92개 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c).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을 상호 협조하여 나누자는 목적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받고 배우고 싶은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며, 자녀들에게는 주어진 자원과 환경 안에서 되도록 풍부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가족품앗이이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하는 등의 모든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e).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가족품앗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이 서로 협력하고 좀 더 믿을 만한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 내 가족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내가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때 품앗이 가족들 간에 자원 소비를 줄이고 절약, 공유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지키는 ‘녹색성장’을 지향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와 관련된 장난감 나누기, 책 나누기, 옷 물려 입기 등 아이 관련 용품의 나눔과 공유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것은 가족품앗이 자체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며, 친근한 이웃이나 또래 엄마들과의 자연스러운 자원의 나눔과 공유를 실천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품앗이 그룹의 크기에 따라 이윤식과 같이 소량

으로 필요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고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를 감소시키는 녹색성장의 효과도 함께 실천해나가고 있다.

3) 이웃사촌한가족

이웃사촌한가족 사업은 가족과 가족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가정문제들을 서로 돕고 해결하는 이웃사촌 망을 구성하고, 이러한 이웃사촌들 간의 나눔을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이웃사촌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연계 지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주로 돌봄 문제 지원(공동육아, 양육품앗이, 학습지원, 어린이 등하교 지원,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적응(한국어지도, 한국생활적응지원 등), 심리·정서적 지원(전화걸기, 방문하기 등), 의식주생활 지원(반찬지원, 옷·가방 나눠 쓰기 등), 사회적 지지망 연계(지역 내 활동에의 공동참여 등), 기타 교육과 가족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이웃사촌한가족 사업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센터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으로 사업 참여 인증 현판을 달아주어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09년도 사업인증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 5개소이다.

이웃사촌 한가족 사업은 일대일 개인 멘토-멘티의 연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연계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맺은 가족 간 도움의 상호 교류가 그 특징이다. 따라서 녹색가족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및 가족품앗이 활동의 대상과는 달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소외가족들까지 녹색가족성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반찬 나눔이나 지원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가정 내 안 쓰는 물건들에 대한 가족 간의 나눔을 바로 가정 대 가정에서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웃사촌 한가족사업이 확대된다는 것은 녹색가족성장이 필요로 하는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즉 이웃사촌한가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대외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가족자원이 빈곤한 가족들에게 까지 일대일 멘토-멘티의 연계를 통해 상세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의 녹색가족성장 운동을 상세히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실천과정을 면밀히 조정·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녹색가족성장 실천방안

각 가정 및 직장 소비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제품의 활용을 통한 '하나뿐인 지구 지키기'와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간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류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정생활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이 요구되며, 이러한 녹색성장 활동지침이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자원봉사단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실천되고 확산되어질 필요가 있다.

☐ 녹색 습관을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가족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지침들(<http://green.korea.kr/>)이 가정생활 교육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정과 직장(혹은 학교나 작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녹색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가정에서는

1. 여름엔 26도 이상, 겨울엔 20도 이하로 유지하기.
2. 절전형 전등이나 절전 플러그로 교체하기.
3.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기.
4.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기.
5. 장바구니 만들기와 애용하기.
6.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7. 샤워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기(절수).
8. 음식물 적게 조리하고 잔반 남기지 않기.
9. 빗물과 태양열 활용하기(주택 단열제품의 사용)
10. 일회용 제품의 사용 줄이기

직장(혹은 학교와 작업장)에서는

1. 여름에 넥타이 풀기와 겨울에 내복 입기.
2. 퇴근 시 전기 플러그 뽑기.
3. 컴퓨터 쓰지 않을 때 전원 끄기.
4. 4층 이하 계단 이용하기.
5. 점심시간에는 조명과 냉·난방기 끄기.
6. 이면지 재사용하기.
7. 개인 컵 사용하기.
8.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족봉사단을 활용한 자원 절약 프로그램의 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쾌적한 녹색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방법의 소개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로 녹색성장 캠페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활동의 중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 봉사단체인 '가족봉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등의 캠페인과 실천운동의 확산과 일상화에 '가족자원봉사단'의 다음과 같은 실천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내 집과 내 직장 앞, 내가 쓸기의 날”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정화까지 확산 할 수 있는 의식개혁만이 우리의 후손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상의 정립일 것이다. 거리를 쓰는 사람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버리는 비양심의 소멸로 환경 개선과 자연보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가자!” 하절기 행락지와 놀이문화 현장에서의 투기 행위로 우리 강산의 맑은 물과 주변 환경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살리기 그리고 내가 사는 내 지역 지키기 운동을 가족봉사단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비

용이나 동원되는 인력의 비용이 모두 세금으로 낭비되는 예산이기에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고 즐겁기 위해 먹고 마시고 남은 쓰레기는 우리가정으로 되돌아가야 만,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우리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미래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결을 도모하자”

가족봉사단을 지역사회 및 공동체 내에서의 청결과 봉사를 이끌 수 있는 환경봉사단체로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성장을 지키는데 앞장서려는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가족과 함께 유도하여 가족봉사단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친화적인, 그리고 그린성장이 실천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녹색성장이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천 될 필요가 있다.

1. 지역 내(학교, 공원 등) 수도, 전기등의 자원은 내 것처럼
2. 빈병과 캔은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3. 음식은 적당히, 넉넉할 땐 이웃과 나누기
4. 옷과 자원나누기
5. 쓰레기 줄이기
6. 자원 재활용 방법 알려주기와 사용(폐유를 활용한 비누만들기, 친환경수세미 만들기와 사용권장등)
7. 나무 많이 심기
8. 지역 환경은 함께 가꾸고 관리하기

IV. 요약 및 결론

2008년 제시된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방향은 가족정책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과 그 내부 프로그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가족정책전달 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및 문화 여가프로그램 내에 ‘녹색성장’을 위한 행동지침을 포함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인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이웃사촌한가족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녹색성장’ 가정생활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친환경‘녹색’ 지역공동체 활동과 ‘녹색’지역문화로 확산시켜갈 수 있다.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서의 의식주 소비생활의 실천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실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로 녹색성장의 개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소비생활 측면에서의 ‘녹색성장’교육과 ‘녹색’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중 자원 절약 캠페인 프로그램과 자원과 에너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열 에너지의 가정 내 활용 방안, 주택의 환기구조와 단열 및 방한, 방풍 및 절수, 의식주생활 자원의 소비절약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자료들, 즉 팸플렛과 활동지침, 가이드 북 등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경우에 경제적 이익의 평가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세제 혜택 등)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봉사단을 활용하여 이러한 '녹색성장' 지침을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문화운동으로 활성화시킬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경우에서처럼 녹색성장 프로그램 시범사업단의 지정과 재정적 지원 및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유관 프로그램의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도 '녹색가족성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2002). 건전가족문화정립을 위한 여가활용연구결과 보고서, 여성부.
- 김혜영(2007). 가족정책 20대 의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외(2009).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안재희(2008). 가족문화의 개념과 가족문화 프로그램의 방향-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년 제1회 가족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교육.
- 이규태(1979). 한국사에 있어서의 복지관, 복지사회의 이념과 방향, 서울: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기영 외(1995). 부부의 공유 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장현갑(2009).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제86회 한국미술치료 연수회 자료집, 한국미술치료학회.
- 정민자 외(2008).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조성은(2007). 건강가정사업과 가족문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년 가족문화사업 전문교육자료집.
- 조성은, 정지영(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여가, 2008춘천 여가학회 자료집.
- 조희금 외 6인(2005).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출판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b). 200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결과보고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a). 200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b).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c). 2007년 가족문화사업 전문교육.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d).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a).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b). 2008년 가족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c). 2008년 운영가이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d). 가족문화사업분석보고서 -2008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프로그램 분석 및 사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a). 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b). 2009년 문화사업사례발표회 및 문화기획 1.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c). 2009년 운영가이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d). 가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e). 가족품앗이 교육.
최재석(1976).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

녹색가족성장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한 지 수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서론에 제시된 대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이 내포하고 있는 환경과 생활에서의 철학은 단순히 세계적 흐름이고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생활 주체가 나아갈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자원경영학분야와 이의 실천의 장이라 할 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일부로서의 ‘녹색가족성장’이라는 용어와, 이를 패러다임화 하려는 시도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의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원고에서 제시한 많은 녹색가족성장 활동들(환경 지킴이, 천연비누 만들기, 지역문화재 지킴이, 친환경수세미 만들기 등)은 대부분 가정‘생활’의 영역이므로 ‘관계 및 사람’에 초점을 두는 ‘가족’보다는 ‘생활’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그 의미에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또한 본문에서는 녹색가족혁명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조직화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보게 된다. 이는 현재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패러다임을 정교하게 조직화하는 후속 작업을 통하여 가정단위의 녹색 성장이 확대 보급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그 실천과 동인에 관련된 논의로 들어가 보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방법들은 불편함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천 주체들이 일정부분 피곤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신제품들이 결국 인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몸이 가지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편함을 수반하는 녹색생활은 단순히 캠페인이나 선언으로 실천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생각이다.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는 실천 지침들, 예를 들면 ‘일회용 용기를 줄이자!’, ‘플러그를 뽑자!’ 등은 표면적인 단순함에 비해 (몸의) 성향을 거슬러 방향을 바꿔야 하는 무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랜 계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지침들이 대중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이러한 물음의 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녹색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한 행동을 할 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관 변화를 위하여 가장 먼저 '교육'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생각해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일회성 캠페인보다는 문화활동으로서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문화활동은 그 안에 활동의 '재미'가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재미란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동인이면서 지속하게 해주는 유인책일 수 있으므로 재미가 어우러진 녹색활동들을 통하여 몸이 녹색활동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를 계기로 가치관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각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생활로 특화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와 함께 '감동'은 불편함을 극복하게 하는 또하나의 요소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족봉사단과 가족품앗이에서 생산되는 감동은 이 활동들이 유지되고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두 그룹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의 녹색의식 및 녹색생활 실천 수준을 대체로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센터 종사 경험상 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감동'과 '녹색의식' 으로 더 닦인 이 두 그룹이 녹색생활실천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녹색가족성장 패러다임 실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